

# 식민지말기 『初等音樂』에 서사된 軍國主義

김서은\* · 김순전\*\*

本稿では日帝末期に使用された朝鮮總督府編纂の唱歌教科書『初等音樂』を調べ、当時の時代的な状況の流れに従って、音楽教育がいかなるイデオロギーに変容されたかを考察することにある。まず第4次朝鮮教育令期に音楽教科書として施された『初等音樂』では、前期のとは違って、日常生活と結びつけて聴音の能力を育てようと尽くしたといえよう。鋭敏な聴覚の育成をこんなに大事にしたことは、戦場でわが軍機と敵機を区分出来、銃、鉄砲などの多様な武器の音を区別できる絶対音感が要求されたうえ、難しい『みくにの歌』をよく歌えるように指導するための目的を保っていたからである。『初等音樂』の内容は特に戦争の風景を赤裸々に浮き彫りする児童用の軍歌とも言える‘戦争唱歌’がそうとう載せてあることに気がつく。『初等音樂』に載っている戦争に関する唱歌は戦時状況が反映された歌で、歌詞に天皇、兵士、皇国人民(国民)、日の丸、大東亜などの用語がよく表れる。唱歌のテキストには戦争に関する唱歌が半分以上を占め、戦争体制下で日本帝国主義が施された‘軍国主義的教育’が如実に装置されてあつて、鋼鉄のような堅い意志を象徴する精神的な側面にエスカレート・アップして戦争のための物資として鉄の大事さを児童に認識させたことがわかった。また唱歌の歌詞を通じて、強占末期に施された唱歌は、音楽性の鼓吹よりは軍国的な戦争を正当化したうえ、美化する教育であったことが分かる。

キーワード : 植民地教育、小学校、唱歌(音楽)教科書、日帝末期  
(식민지교육, 초등학교, 창가(음악)교과서, 일제말기)

## 1. 들어가며

플라톤은 음악이 인간의 본능을 각성하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는 까닭에 음악교육을 통하여 국민들이 마음으로부터 국가의 질서를 따르게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곧 음악교육으로 인한 ‘음악의

\* 전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일반대학원 박사수료

\*\* 교신저자, 전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수반적인 교육적 가치'가 인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기능이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음악은 인간의 정신활동 속에서 합목적성을 이루며 유기적으로 진화하는 과정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음악'을 '교육'으로 가져온다면, 음악은 그 자체로 울리며 의미를 만드는 '순수'한 교육적 재료로 쓰일 수 없다. 국가에서 원하는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음악교과는 '음악'과 '공교육'의 유기적 상호보완 관계에 의한 사회적 실제이기에 이에 적합한 '음악에 의한 교육'이 교수·학습의 핵심이 되어야한다.<sup>1)</sup>

또한 문화는 사회의 존재를 전제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일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의 현상은 곧 시대의 표상(表象)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문화기대(文化期待)란 문화 그 속에서 태어난 개인에게 특정한 생활방식 또는 행동양식으로 행동할 것을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문화가 개인에게 이와 같은 문화기대를 갖게 하는 것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통제이며, 보이지 않는 구속력을 가진다.

일제강점 말기 일본은 1937년 중일전쟁과 1941년 태평양전쟁의 발발로 한반도를 전쟁수행의 정책지로 전환시킨다. 전시상황의 일본은 조선에서 인적 물적 자원을 공급시키게 하였으며, 사상적으로 일본인화(同化)하기에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일제는 병참기지화와 황국신민화정책을 선동 고무시키기 위해서 문화를 적극 활용하며 그 중에서도 음악을 수단으로 파악하고 시국가요를 제작, 보급하기 시작했다. 전장과 학교, 음악회장, 각종 집회, 신문방송, 레코드 등 음악으로 소통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음악을 지배체제에 개편시킨다. 이러한 문화와 음악교육의 특징을 파악하고 일제는 어린 아동을 교육하는데 있어서도 '唱歌'<sup>2)</sup>를 도입

1) 윤성원(2010) 「음악교과교육의 영역과 역할 탐색을 통한 음악과 교육과정 성격 함의」 『음악교육공학 제11호』 한국음악교육공학회, p.4.

2) 창가는 1872년 8월 학제반포(學制頒布)이후부터 사용되어지고 있는 언어로, '악기에 맞추어 가곡을 바르게 노래하고 덕성의 함양과 정조의 도야를 목적으로 하는 교과서'라는 의미와 '그 과목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가곡'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교과목의 경우 1941년에 명칭이 '唱歌'에서 '音樂科'로 바뀌었다. (호

하여, 음악교과서에 의식창가와 일본군가 등을 수록하여 식민통치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본고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마지막으로 편찬한 음악교과서인 『初等音樂』<sup>3)</sup>을 통하여, 시대상황과 함께 음악교육이 어떠한 양상으로 변용(變容)되었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일제의 음악교육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통감부기에 집중되어져 있었다.<sup>4)</sup> 이를 큰 줄기로 살펴보면 일제강점기의 음악교육에 관한 연구,<sup>5)</sup> 근대교육사에 대한 연구,<sup>6)</sup> 음악 교육과정 변천사에 관한 연구<sup>7)</sup>가 있다. 최근의 연구로는 이러한 시대적 교육변천과정에 따른 음악교육을 망라해 정리한 권혜근(2010), 「韓國 近·現代의 音樂教育 研究-韓·日 音樂 教育課程의 比較」, 성균관대 박사논문을 들 수 있겠다. 이 논문은 통감부시기부터 조선총독부까지의 음악교육을 교육정책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현재 음악교육에 미친 영향관계까지 규명하고 있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시대 흐름에 따른 음악교육에 대

리우치 게이조·이노우에 다케시 공저(1992) 『日本の 唱歌』 한국음악사학보, pp.187-188)

- 3) 논문에 수록된 창가들은 김순전 외(2013)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편찬 초등학교 〈唱歌〉 교과서 대조번역(下)』 제이앤씨를 텍스트로 하며, 이후 인용은 『〈唱歌〉 대조번역(下)』로 표기하도록 하겠다. 또한 창가의 표기는 〈권-과〉, 「단원명」으로 표기하도록 하겠다.
- 4) 대표적인 연구논문으로 김혜정(1998) 「일제하 음악교육정책 연구」 목원대학교 석사논문을 들 수 있겠다. 김혜정은 통감부와 조선총독부의 음악교육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일본식 교육체제로 인해 음악교육에 미친 영향을 창가를 통해 살펴보고 있다. 이 외에도 이 시기를 중심으로 한 논문들은 일제의 창가도입으로 인한 전통음악의 변천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김병선(1990) 「韓國 開化期 唱歌 研究」 전남대 국문과 박사논문이 있다.
- 5) 오지선(2003) 『조선근대음악교육』 예술, 노은희(1997) 「일제시대의 음악교육 정책」 동아대 석사논문, 강은영(1997) 「1920년대 사립학교 음악교육연구」 목원대 석사논문, 조은령(2001) 「일제시대의 음악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한 조선의 음악교육사 연구」 성신여대 교육대학원이 있다.
- 6) 정재철(1985) 『日帝의 對韓國殖民地 教育政策史』 일지사, 오성철(2005) 『식민지 초등교육의 형성』 교육과학사, 함종규(2004) 『조선교육과정변천사연구』 교육과학사, 김영우(1995) 『조선초등교육사』 조선교육사학회 등을 들 수 있겠다.
- 7) 황미영(2005) 「역사적 고찰을 통한 조선음악교육의 교육방향 제시」 경원대 석사논문이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역사적 나열에 그치고 있다.

한 정책적 변화 등 통사적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당시 교육된 '창가'에 대한 미시적(微視的) 고찰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특히 일제말기에 교육된 『初等音樂』 교과서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다고도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제 말 전시체제기에 아동들에게 교육되어 불려진 '唱歌'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일제 말 '軍國主義' 교육이 얼마나 깊숙이 문화와 교육에 스며들었는지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 2. 『初等音樂』의 특징

먼저 시대적 흐름에 따른 음악교육의 특징을 살펴보면 1910년 8월 29일에 조선총독부가 설치되면서 조선교육령이 공포되었다. 조선총독부의 교육 시기는 크게 4차로 나눌 수 있는데 제1차 교육 시기의 음악교육은 창가의 목적이 덕성의 함양이 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제2차에 나타난 교육적 특징은 '시의(時宜)에 의한' 가설과목이었던 '창가'가 드디어 필수과목으로 채택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제3차 교육의 특징은 황국신민화를 위한 교육으로 의식창가가 두드러지게 강조되었다. 제4차 시기에는 '창가'의 교과가 '음악'으로 교과명이 바뀌었고 예능과(藝能科)에 속하게 되었다.<sup>8)</sup>

태평양전쟁이 점차 확대되자, 황국신민화 교육의 군사체제화가 급속히 추진되었다. 일본은 조선인을 군사적 목적으로 동원, 전시 에 대비한 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43년 제4차 교육령을 발표하였다. 몇 달 뒤에는 학교교육을 완전히 전시교육체제로 전환시켰다. 또한 군국주의적 국가체제에 따라 교육이라기보다는 군사 능력의 배양이라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sup>9)</sup> 이를 통해 교육은 완전히 군부의 통제 하에 편성되었고, 이는 민족말살정책의 황민화

8) 권혜근(2010) 『韓國 近・現代의 音樂教育 研究 - 韓・日 音樂 教育課程의 比較』, 성균관대 박사논문, p.27.

9) 정재철(1985) 『日帝의 對韓國植民地 教育政策史』 일지사, p.463.

정책에서 학생을 병사로 동원하는 군사체계화로 바뀌 추진한 것이다. 실제로 일제는 교육의 군사체계화를 위해 1944년 4월 〈학생동원체제정비에 관한 훈령〉, 학도운동본부의 설치, 〈학도노동령〉 공포에 이어 1945년 3월 〈결단교육 조치요강〉 등의 각종 법령을 공포하여 학교교육을 전쟁수행의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또한 일제는 '소학교'를 '國民學校'로 개명하였다. 國民학교라는 명칭을 통하여 초등보통교육의 통합적인 지표로서 '국민의 양성'을 표방하였다. 즉 초등학교 교육의 목적으로서 '皇國의 道에 따른 國民의 基礎的 養成'을 내세우고 본격적인 군국주의적 전제교육을 실행하기 시작한 것이다.<sup>10)</sup> 이는 대동아전쟁으로 말미암아 인적, 물질적 소비와 보급에 있어 조선의 위치가 중요해짐에 따라 황민식민화교육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보통학교 교과서의 음악시수를 보면, 음악은 1학년 때 체조와 함께 5시간, 2학년은 체조와 함께 6시간, 3·4학년은 음악만 2시간씩 배정되었다. 그리고 5·6학년은 남학생은 매주 1시간, 여학생은 2시간씩 배정되었다. 종래에는 남학생의 경우 매주 26시간이었던 창가와 체조시간이 國民학교에서는 37시간이나 되어 무려 11시간이나 증가하게 된다. 군사체제로 들어서면서 체련과에 관심이 커져 시수가 증가하게 되었고 음악교과는 예능과로 편입되었다.<sup>11)</sup> 또한 당시 國民학교 규정 제15조를 보면

예능과의 음악은 가곡을 바르게 노래하고 음악을 감상하는 능력을 양성하고 황국신민으로서의 정조를 순화하는 것으로 한다. 초등과는 평이한 단음창가를 부과하며, 적절하게 윤창(輪唱; 돌림노래) 및 중음창가를 추가하고 음악을 감상시키도록 해야 한다. 또 악기의 지도를 할 수 있다. 창가와 관련하여 적절하게 악전의 초보를 가르쳐야 한다. 고등과는 그 정도를 높여서 이를 부과해야한다. 가사 및 악보는 국민적이어서 아동의 심정을 쾌활·순미하게 하고 덕성을 함양하는데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아동의 음악적 자질을 계발하고 고상하고 우아한 취미를 함양하

10) 진영은(2003) 『교육과정-이론과 실제』 학지사, p.87.

11) 권혜근(2010) 앞의 논문, p.46.

며 국민음악창조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 발음 및 청음의 연습을 중시하여 자연발생에 따라 올바른 발음을 하도록 하며, 또한 음의 고저, 강약, 음색, 율동, 화음 등에 대하여 예민한 청각을 육성하여야 한다. 축제일 등의 창가에 대해서는 주도면밀한 지도를 해서 경건한 이념을 기르며, 애국의 정신을 양양하도록 힘써야 한다. 학교행사 및 단체 행동과의 관련에 유의해야 한다.<sup>12)</sup>

라고 명시하고 있어, 노래를 부르는 가창뿐 아니라 발음 및 청음훈련, 악기지도, 악전, 의식창가지도, 국민음악 창조의 고양 등 중요 항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본격적인 음악교육이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음악교과는 '황국신민으로서의 정조'를 순화하기 위한 군국주의 선전고취의 도구가 되었고 음악에 있어 가사(歌詞)는 될 수 있는 대로 황국 신민으로서 정조를 함양하는데 적당한 것을 선택할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sup>13)</sup>

그리고 이전시기와 달리 '발음 및 청음의 연습을 중시하여 자연발성에 따라 올바른 발음을 하도록 하며, 또한 음의 고저, 강약, 음색, 율동, 화음 등에 대하여 예민한 청각을 육성하도록 한다.'라는 항목이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일상생활의 소리와 연관시켜 청음 능력을 키우도록 하였다.

이렇게 청음 즉 예민한 청각의 육성을 중시하게 된 이유는 단지 예술교육, 음악교육의 교육적 목적이 아니라 음악을 국방국가의 건설이라는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이용하려고 한 것이다. 사실 그것은 히라데(平出)라는 해군대위의 요청에 따른 군부의 지시였다. 이는 당시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야군의 비행기인지 적국기인지, 대포소리는 어느 나라의 것인지, 어느 편인 군함 소리인지 분간할 수 있는 군사적 목적을 위한 절대 음감을 위한 청음교육이 이루어졌음을 뜻한다.<sup>14)</sup>

또한 내용에 있어서도 전쟁과 전쟁을 위한 노동착취를 위한 가사

12) 1943년 조선총독직령 國民학교 규정 제 15조.

13) 오천석(1964) 『한국신교육사』 현대교육총서출판사, p.340.

14) 권혜근(2010) 앞의 논문, p.47.

가 교과서의 수록곡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표 1〉 『初等音樂』의 내용에 따른 분류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의식창가	6	6	7	7
전쟁의식	5	12	14	12
노동	5	3	3	3
그 외	12	7	5	7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初等音樂』 교과서는 3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의식창가는 별도로 하고 총 22과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체제에 돌입한 시대적인 영향으로 3학년 이후 전쟁의식을 고취시키고 미화하는 단원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후방지원을 의미하는 노동력 착취를 위한 창가들도 눈에 띈다.

그 외의 곡들도 아동들의 일상이나 정조의 고취에 관련된 내용이 라기보다는 일본의 연중행사, 찬양, 충성심 등을 고취시키는 내용이 포함된 제재곡들이다.

의식창가는 1893년 문무성에서 공포되었으며 도덕적 혹은 국가사상통일을 위해 제정되었다. 이렇게 제정된 의식창가는 태평양전쟁의 마지막해인 1945년까지 52년간 조선반도를 포함한 일본 전 국민에게 노래 불려졌다. 『初等音樂』에는 일본의 국가인 「기미가요(君が代)」를 비롯하여 「칙어봉답(勅語奉答)」, 「천장절(天長節)」, 「메이지절(明治節)」, 「1월1일(一月一日)」, 「기원절(紀元節)」이 공통적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5학년에 「금강석, 물은 그릇 나뭇(金剛石·水は器)」이, 6학년에는 「메이지 천황 지음(明治天皇御製)」이 수록되어져 있다. 앞서 언급한 國民學校令 규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축제일의 의식창가에 대해 세심하게 배려되었다. 그러나 의식창가는 가사(歌詞)나 음부(音符)면에서 아동에게는 난이도가 높아서 흥미를 잃게 하기도 하였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4차 교육령의 초등학교 규정 제15조 제 6항을 보면 '발음 및 청음의 연습을 중시하여 자연발성에 따라 올바른 발음을 하도록 하며, 또한 음의 고

저, 강약, 음색, 율동, 화음 등에 대하여 예민한 청각을 육성하도록 한다.'고 명시하여 청음 교육을 중시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군사적인 목적도 가지고 있었으나 어려운 의식창가를 더욱 주의하여 부르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의식창가는 애국정신을 함양시키고, 감정이나 행동에 통일성을 주며, 단체훈련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제일(祭日)이나 축일에 의식창가를 부를 때 더욱 주의하여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도 청음 교육을 중요시 하였던 것이다.<sup>15)</sup> 이러한 목적을 두고 실시된 청음교육의 강조는 『初等音樂』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겠다.

### 3. 전쟁동원을 위한 음악교육

청일전쟁(1894~1895) 이후에는 전쟁을 반영한 군가가 매우 큰 힘을 가지고 유행하였는데, 러일전쟁(1904~1905) 이후에도 그 경향은 계속되었다. 1886년 8월 소설가 야마다 비묘(山田美妙)가 발표한 「新體詩選」 속에 「戰景大和魂」이라는 글에 동경음악학교 교관인 고타마 사쿠노스케(小山作之助)가 작곡하여 「敵は機萬」이라는 노래를 만들어 1891년 『國民唱歌集』에 수록한다. 이것이 일본 군가의 선구가 된다.<sup>16)</sup> 이렇게 시작된 전쟁창가는 전쟁선동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일본에 대한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역할까지 담당했다.

아동기는 인성의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또한 아동에게 있어 음악은 개인의 행동과 깊은 관계를 맺고, 집단과 집단 간에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회문화적 시스템을 이룬다. 이것은 음악적 행위가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하며, 동시에 사회가 음악적 행위를 조건화시키고 있음을 말한다.<sup>17)</sup> 이처럼 일제의 음악교육은 아동의 정신과 행위뿐 아니라 사회적인 메커니즘으로

15) 中村紀久二 外(1982) 『復核國定教科書(國民學校期)解説』ほるぶ出版、pp.167-168 참조.

16) 호리우치 게이조, 이노우에 다케시 공저(1992) 『日本の唱歌』 한국음악사학보, p.194.

17) 노동은(2002) 『한국음악론』 한국학술정보(주), p.447.

작용하여 식민성을 자아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이러한 음악교육은 중일전쟁 이후 음계의 사용에 있어 황국신민의 정조를 함양하기 위한 국민성과 전쟁에 참여하고 응원하기 위한 군가풍의 음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반화된 식민성이 더욱 전투적이고 파쇼적인 형태로 나타났다.<sup>18)</sup> 따라서 군국교육을 목적으로 평화라던가 자연을 노래하는 창가가 없어졌고, 일본 천황을 숭상하는 내용이나 국가예찬, 전쟁미화 등의 가사가 중요시되었다.

『初等音楽』에는 특히 전쟁풍경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전쟁창가’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아동용 군가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쟁 관련 창가는 전시시국을 반영하는 가사(歌詞)에 천황, 용사, 국민, 일장기(日の丸), 대동아 등의 용어가 등장한다. 특히 〈3-7〉 「어린이 애국반(こども愛國班)」에는 전쟁을 선전 선동하는 용어들이 노골적으로 가사(歌詞)로 사용되고 있다.

こども愛國班

어린이 애국반

一 太鼓がなるよ丘(おか)の上。 集れ こども愛國班。 朝日の光あびながら、 宮城遙拝致しませう。	큰북이 울리네 언덕 위 모여라 어린이 애국반. 아침 햇살 받으며 궁성 요배하세
二 日の丸あげた町の辻。 集れ こども愛國班。 今日は大詔奉戴日、 鐵くづあつめをいたしませう。	일장기 게양된 마을 사거리 모여라 어린이 애국반 오늘은 대조봉대일 고철 모으기를 하세
三 ラッパがなるよ松林。 集れ こども愛國班。 むかふの丘の學校へ、 そろって急ぐ露の道。	나팔이 울리네 솔밭 모여라 어린이 애국반 건너편 언덕 학교로 모여서 서두르는 이슬길 <sup>19)</sup>

18) 이병담, 김혜경(2007) 「조선총독부 초등학교 『창가』에 나타난 음악교육과 식민성」 『일본어문학』 37집 일본어문학회, p.191.

19) 김순전 외(2013) 『〈唱歌〉 교과서 대조번역(下)』 제이앤씨, pp.170-173.

가사(歌詞)에 애국, 일장기, 천황폐하 등의 용어를 사용해 어린이들까지 총동원하여 전쟁을 위한 준비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여, 선전 선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삽화에도 어린이들이 손수레에 철 고물을 실어 끌고 당기며 직접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는 아동들에게 후방 지원을 위해 전력을 다해 줄 것을 암시하고 있다.

애국반이란 1938년 7월 7일 조직된 국민정신총동원(이하 '정동'으로 줄임) 조선연맹의 각 부락 연맹과 관공서, 학교, 은행 기타 제 단체로 결성된 각종 연맹 산하에 10호 단위로 만들어진 조직을 말한다. 일본의 '정동'운동이 말단 조직 없이 출발한 것과 대조적으로 조선에서는 '정동'운동의 출범 직후부터 말단 행정 단위를 기본으로 하여 주민 조직을 결성하는데 많은 노력이 집중되었다. 이렇게 일본보다 조직적으로 갖춰진 조직망으로 인해 애국반은 '조선정동운동의 일대 특색'으로 간주되었고, 이를 통해 생활 속의 주민실천운동이 더욱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렇게 말단에 이르는 '정동'의 조직망이 조선에서 이루어진 것은 무엇보다도 대륙침략정책의 수행에서 조선이 가진 위치, 즉 병참기지로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조선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야할 필요성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특히 인적 자원으로로서의 조선인에 대한 요구는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협력이었다. 애국반은 인적·조직적으로 동원 가능한 자원이 빈약했던 조선에서 총독부가 주축이 되어 만든 말단 조직이었다. 총독부는 애국반 단위를 통해 주민들에게 후방에서의 마음가짐과 임무에 대해 선전하면서 노동력과 자원 등을 체계적으로 동원하려고 하였다.<sup>20)</sup>

그리고 당시 10세 전후의 아동은, 일본어 교육은 물론 황민화 교육 시행이 가능한 가장 유력한 조직이었기 때문에 '어린이 애국반'의 활동은 중요한 것이었다. 따라서 총독부에서 편찬한 음악교과서를 통해 노래로 자연스럽게 애국반 활동을 장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음악교과서에는 직접적으로 전쟁 의식을 고취하는 내용

20) 방중기(2004) 『일제파시즘 지배정책과 민중생활』 연세국학총서, pp.415-417 참조.

의 노래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軍 旗	군 기
一 軍旗、軍旗、 天皇陛下の みてづから、 お授けくださる尊い軍旗、 わが陸軍のしるしの軍旗。	군기, 군기, 천황폐하가 친히 하사하신 존엄한 군기 우리 육군의 상징인 군기
二 軍旗、軍旗、 天皇陛下の おことばを、 心にきざんでみ國を守る、 わが陸軍のいのちの軍旗。	군기, 군기 천황폐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황국을 지키네 우리 육군의 생명인 군기 <sup>21)</sup>

인용문은 〈3-16〉 「군기(軍旗)」라는 단원이다.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 천황폐하의 말씀과 호의를 받들어 마음에 새기고 조국을 지켜야한다는 의지가 담긴 노래이다.

靖國神社	야스쿠니 신사
一 ああ、たふとしや、大君に 命ささげて、國のため たてしいさは、とこそへに 光りかがやく 靖國の神。	아- 고귀하여라 천황께 목숨을 바치고 황국을 위해 세운 공적은 영원토록 빛나라 야스쿠니의 신 <sup>22)</sup>

인용문은 〈4-11〉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의 1절이다. 노랫말은 전쟁에 나가 목숨을 바침으로서, 야스쿠니의 신으로 남아 나라를 위해 세운 공적이 영광에 빛난다는 전쟁수행을 위한 직접 동원에 나설 것을 시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절에 나오는 ‘벚꽃나무’로 형상화되는 야스쿠니의 신들은 수많은 병사들의 죽음을 아무런

21) 김순전 외(2013) 『〈唱歌〉 교과서 대조번역(下)』 제이앤씨, pp.192-193.

22) 김순전 외(2013) 『〈唱歌〉 교과서 대조번역(下)』 제이앤씨, pp.256-257.

미련없이 깨끗이 산화하는 ‘벚꽃’으로 미화하면서 어린 학생들에게 천황을 위해 기꺼이 죽음의 대열에 나서기를 고무하고 있다. 아동들은 이러한 노래를 통해 전쟁에 나아가 전사가 되기를 야스쿠니의 신이 되기를 꿈꿨을 것이다.

## 大東亞

## 대동아

- |   |  |
|---|--|
| 一 椰子の葉に鳴る海の風。<br>峯にきらめく山の雪。<br>南十字と北斗星、<br>連ねて廣き大東亞。  | 야자잎에 우는 바닷바람<br>봉우리에 빛나는 산의 눈<br>남십자성과 북두칠성<br>연결된 드넓은 대동아                             |
| 二 ここに生まれし十億の<br>人の心はみな一つ。<br>盟主日本の旗のもと、<br>ちかひて守る鐵の陣。 | 여기서 태어난 10억 인의<br>사람들 마음은 모두 하나<br>맹주 일본의 깃발 아래<br>맹세하며 수호하는<br>철통같은 진지 <sup>23)</sup> |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하는 〈5-10〉 「대동아(大東亞)」라는 단원이다. 이처럼 전쟁 노래에는 대동아 공영권 구축을 위한 당위성과 목표성이 제시되어 있다. 특히 ‘대동아’라는 단어는 교과서 전반에 걸쳐 14번이나 거론되고 있다.

〈대동아공영권〉이라는 단어가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은 1940년 8월 1일 제2차 고노에(近衛) 내각의 외상 마쓰오카 요스케(松岡洋右)의 발언이라고 한다. 마쓰오카는 “황도의 대 정신에 따라 먼저 일본(조선 포함)·만주·중국을 일환으로 하는 대동아공영권의 확립”을 통하여 “공정한 세계평화의 수립에 공헌”한다고 발표하였다. 마쓰오카가 천명한 이러한 독선적 외교이념은 1938년 11월 고노에 수상의 ‘동아신질서’성명, 1940년 7월 〈기본국책요강〉에서 밝힌 대동아 신질서 건설 및 국방국가체제의 완성 등과 맥락을 같이하는 내용이다. 마쓰오카가 ‘대동아신질서’가 아닌 ‘대동아공영

23) 김순전 외(2013) 『〈唱歌〉 교과서 대조번역(下)』 제이앤씨, pp.328-329.

권'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당시 독일이 전승으로 유럽에 '신질서'가 건설되면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식민지였던 동남아시아에 힘의 공백지대가 생겨났기 때문이었다. 이를 계기로 일본은 자원 확보를 위해 동남아시아를 지배하고자 하였으며 이때 자신들의 침략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채용한 것이 독일 파시즘의 지정학적 개념인 '광역경제권', '생존권', '자급자족' 등의 이론이다.<sup>24)</sup>

일본은 이러한 대동아공영권 구축을 위한 선전으로 일본 자신을 '아시아의 해방 기수'라고 지칭하였다. 따라서 교과서에서도 '대동아'라는 단어를 언급하여 정당성과 당위성을 부여했던 것이다. 일제의 교육을 받은 아동들은 교과서와 노래를 통해 대동아공영권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여, 전쟁을 당연한 귀결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외에도 <4-14> 「입영(入營)」, <4-19> 「소년전차병(少年戰車兵)」, <5-8> 「전우(戰友)」, <5-16> 「하늘의 용사(空の勇士)」, <6-11> 「낙하산부대(落下傘部隊)」, <6-21> 「태평양(太平洋)」, <6-22> 「아시아의 빛(アジアの光)」 등 전쟁을 정당화하여 그 수행을 위해 목숨을 바치기 위해, 지원병 장려를 위한 노래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4-18> 「히로세 중령(廣瀨中佐)」과 <5-13> 「다치바나 중령(橘(たちばな)中佐)」, <6-4> 「일본해해전(日本海海戰)」, <6-18> 「수사영의 회견(水師營の會見)」 등은 가사에 이야기 형식을 빌려 대화체를 사용한 것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 형식의 대화체를 사용함으로써 아동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전쟁'이라는 소재를 재미있게 느끼도록 장치한 것을 알 수 있다.

### 3.1 '鐵'의 이중적 의미

『初等音樂』의 노랫말 전반에 걸쳐 '철(鐵)'라는 단어가 9회 정도

24) 김정현(1994) 「일제의 대동아공영권 논리와 실제」 역사비평, p.71.

나오고 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철, 무쇠처럼 단단한 일본의 군대로 상징되는 이미지와 철과 같이 굳은 의지를 표상(表象)하는 이미지로 중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적인 부분 이외에 군수물자에 필요한 '鐵'을 중요하게 여기는 일제 전시국책의 다중적 의미가 중의(重意)되어있는 것도 중요한 장치로 볼 수 있다.

'일본 전쟁경제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제약요소는 철강 생산의 빈약함에 있었다.'고 할 정도로 일본의 철강업은 원료의 해외의존도가 심했다. 1937년 7월 도발한 중일전쟁 초기에는 아직 미국과의 교역이 단절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대로 수요를 맞출 수 있었으나, 1940년 10월 미국산 고철의 대일 수출이 전면 금지되면서 철광석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결전 하 항공기는 물론 함선 병기 등 직접 군수자재가 되고 또 온갖 중요산업의 근간적 자재인 철강의 급속 증산이 껌직한 도를 더한 것은 이에 다연할 필요가 없으나 현하 조선의 철광 채굴 사업 및 제철사업에 대한 국가의 기대는 비약적으로 가중되고 있어 우리는 그 실무의 중대성을 통감하여 필사적인 노력을 각오하고 있는 바이다.

인용문은 1944년 다나카(田中增産) 정무총감의 정례도지사회의에서의 '철의 긴급 대증산에 대하여'라는 요구서에서 발췌한 것이다.<sup>25)</sup>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연합군의 해상봉쇄로 인해 종래 말레이시아나 필리핀 등지에서 수입에 의존하던 철광석의 수입길이 막혔고 설상가상으로 1944년에는 중국산 철광석마저도 운송이 두절되자 선택의 여지없이 철의 수요는 조선의 몫이었다. 그러나 철의 증산정책에도 불구하고 철강이나 철광석은 운송력 감소, 원자재난 등을 겪게 된다. 전시체제기에는 이러한 철의 필요성이 절실했고 이것이 창가 교육에도 반영되어 있다.

<3-7> 「어린이 애국반(こども愛國班)」에 나와 있듯이 '고철 모으기를 하세(鐵くづあつめをいたませう。)'라는 구절을 통해서도

25) 김인호(2000) 『식민지 조선경제의 종말』 신서원, pp.306-310 참조.

철이 얼마나 중요한 자원이었는지 알 수 있다. 실제로 당시 학교에서 사용하던 악기들까지도 전쟁수행을 위한 물자동원 명목으로 견어갔을 정도로 ‘철’이 귀한 자원이었던 것이다.

전쟁 자원으로서, 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일반적 의미인 ‘鐵’이, 정신적이고 국가 봉공적인 차원의 상징적 의미로 차용되고 있음을 가사를 통해 알 수 있다.

千早城

지하야성

二 忠義のころは、  
鐵より堅く、  
まもるは楠木  
一千よ人。

충의의 마음은  
철보다 단단하여  
수비는 구스노키(楠木正成)군  
천여 명<sup>26)</sup>

인용문은 <4-5> 「지하야성(千早城)」의 2절 부분이다. 이 노래에 나오는 지하야성은 가마쿠라 막부 말기의 무장 구스노키 마사시게가 곤고산(山) 일대에 쌓은 산성 중 하나이다. 1333년에 천여 명의 마사시게군은 방어의 중심이 된 지하야성에 버티며 성을 포위한 가마쿠라 막부의 대군에게 돌과 나무를 던지고 불 공격으로 대항하며 선전했다. 지하야성에 가마쿠라 막부 군의 발이 묶여 있는 사이, 닛타 요시사다가 동쪽 지방에서 군사를 일으켜 가마쿠라 막부를 멸망으로 이끌었다. 그 후 성은 남북조시대에 하타케야마 씨의 공격으로 함락되어 폐성이 된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노래하는 가사에 ‘鐵’이라는 이중적 장치를 삽입하여 무쇠, 강철과 같은 굳은 의지로 승화시켜, 아동들에게 철의 중요성을 암시하였다는 점에서 전쟁수행을 위한 세심한 장치라고 할 수 있겠다.

26) 김순전 외(2013) 『〈唱歌〉 교과서 대조번역(下)』 제이앤씨, pp.242-243.

### 3.2 ‘少年産業戰士’ 만들기

일제는 1937년 중일전쟁을 목전에 두고 식민지 조선을 인적·물적인 병참기지로 삼아 전시 총동원체제를 구축하기에 이른다. 일제는 조선인들을 전장으로 내몰기 위해 ‘내선일체’를 구체화하며 소위 민족말살정책을 단행한다.

당시 인적자원의 경우만 보더라도, 어린이와 노약자를 제외한 전 조선인을 대상으로 하여 일본·남방·사할린에 강제 동원된 노동력만 73만여 명, 군인·군속 37만여 명, 군위안부 10~20만여 명이 동원되었다. 동시에 일제는 조선어 사용 금지·신사참배·황국서사·황국요배 등을 통하여 정신적 동화를 획책하였으며 창씨개명을 단행하였다. 일본어 습득과 황국정신 함양, 실업교육과 체육단련을 목적으로 하여 소학교를 확충하고 교과서 내용을 개편하는 교육개혁을 단행하였으며 심지어 결혼장려책이라는 미명하에 혼혈 정책까지도 추진하였다.<sup>27)</sup>

이러한 황민화정책의 목표는 징병을 통해 조선민중을 전장으로 동원하는 것이었다. 중일전쟁 이후 1938년 2월 조선에서 실시한 ‘지원병제도’의 목표는 “조선 민족이 가급적 빨리 皇國臣民으로서 천황을 도울 정신적 존재가 되는 것”이었다. 또한 일본은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을 도발하고, 조선인의 황민화 정도를 판가름할 겨를도 없이 ‘징병제’ 실시를 위해 ‘호적정비, 징병에 대한 계발·선전, 조선인 鍊成<sup>28)</sup> 일본어 보급’을 강도 높게 추진했다. 그리고 이 시기 노동통제이데올로기는 ‘皇國勞動觀’-‘國家主義的’ 勞動觀-으로 표현되었다. 皇國勞動觀이란 바로 황국신민화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쟁터, 공장, 광산에서 국가에 ‘봉사’하는 것으로 노동통제 이데올로기의 요체였다. ‘노동’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고 신성하며 노동의 신성함은 곧 국가에 봉사하기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이러한 노

27) 강창일(1995) 『일제식민지정책연구논문집』 중에서 「일제의 조선지배정책과 군사동원」 광복50주년기념사업위원회 학술진흥재단, p.137.

28) 鍊成이라는 용어는 ‘皇國臣民으로서의 자질을 鍊磨育成하는 것’을 뜻하며 1935년 文部省문서에서 처음 사용했다. 이것은 종래의 교육에 대한 비판, 革新원리를 내포하는 것으로 文部省이 새롭게 만든 말이었다.

동통제이데올로기는 공장, 광산의 군대화를 가져와 노동자를 ‘황국 産業戰士’로 개조해 전쟁 물자를 증산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다.<sup>29)</sup>

少年産業戰士

소년산업전사

一 朝にいただく残んの星影、 아침에 비쳐오는 새벽녘 별빛  
夕べにふみ來る野道の月影。 저녁녘 밟고 오는 들길의 달빛  
生産、増産、われらの勤めと、 생산 증산 우리들의 소임으로  
銀とり、鎌(かま)とぐ少年戰士。

팽이 들고 낫을 가는 소년전사

二 油にまみれて、額に汗して、 기름투성이가 되고 이마에  
땀 범벅으로  
飛び散る花火に、輝くひとみよ。 흩어지는 불꽃에 반짝이는  
눈동자여  
生産、増産、われらの勤めと、 생산 증산 우리들의 소임으로  
鐵うちきたへる少年戰士。 쇠붙이 두드리며 단련하는  
소년전사

三 この腕、この技、み國ささげて 이 솜씨 이 기술  
황국에 바쳐서  
いやましおこさん、東亞の産業。 더욱더 일으키세  
동아의 산업  
生産、増産、われらの勤めと、 생산 증산 우리들의 소임으로  
ほほ笑み働く少年戰士。 웃으며 일하는 소년전사<sup>30)</sup>

인용문은 〈6-17〉 「소년산업전사(少年産業戰士)」이다. 소년산업 전사는 어린아동들을 공장 등 산업현장에 내몰고 강제 징용하는 것을 의미했다.

전시체제기는 노동력동원정책으로 인해 유년노동자의 수가 급증

29) 광건홍(2001) 『日帝의 勞動政策과 朝鮮勞動者』 신서원, pp.218-220.

30) 김순전 외(2013) 『〈唱歌〉 교과서 대조번역(下)』 제이앤씨, pp.420-421.

했다. 특히 공장노동자 가운데 유년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931년부터 1943년 사이에 약 7.5배 정도 증가하여 전체노동자의 증가비율보다 높았다. 남성노동자 가운데 유년노동자의 비율은 1931년 2.8%에서 1943년 7.4%로, 여성노동자 가운데 유년노동자는 1931년 19.7%에서 1943년에는 무려 41.2%로 증가했다. 전체 공장노동자 가운데 유년노동자 비율은 1931년 8.2%에 머물렀으나 1942년 16.4%, 1943년 15.8%로 급증하여 일본이 조선에서 전시체제기에 노동력 동원을 위해 얼마나 혈안이 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 또한 공장 유년노동자는 연령별로는 14~15세가 대부분이었으나 12세 이하도 12%에 이르렀다.<sup>31)</sup> 일본은 이 시기 유년노동자를 포함한 청소년 노동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노동효율을 극대화하려 했으며 이러한 경향은 태평양전쟁 말기로 가면 갈수록 심화되었다.

가사(歌詞)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생산, 증산’을 부르짖으며 16세 미만의 어린아동들에게 ‘기름투성이에 땀범벅이 되어도’ 노동을 기뻐하며 웃으며 일할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아동들의 노동력 착취는 가혹했고 어린이들의 노동시간도 13시간에서 최장 18시간을 육박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노동시간은 어른들도 견디기 힘들만큼 잔인한 노동력 착취였다.

또한 조선총독부가 노동능률을 향상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채택한 것은 생산현장을 군사적으로 편제하는 것이었다. 생산현장에서 ‘병영적’ 노동통제방식은 근대적 공장공업이 발흥되기 시작한 1920년대부터 이미 일부 방직공장 등에서 행해졌으나, 군대식 노동규율이 본격적으로 관철되기 시작한 것은 1940년대 초에 이르러서였다. 즉 경례방법, 민첩한 동작의 요구, 직무에 대한 복종강요, 일부 광산이지만 부대편성과 훈련이 이루어졌다.

1943년 조선총독부는 ‘産業軍團’ 개념을 주창하고, 그해 9월에는 仕奉隊를 조직하여 생산현장을 군대식으로 조직했다. 노동대중에게

31) 박건홍(2001) 『일제의 노동정책과 조선노동자』 신서원, pp.273-280.

는 일사 분란한 지휘체계와 명령에 대한 절대복종이 요구되었으며, 일제는 이를 바탕으로 노동대중을 ‘皇民化’하여 군수생산능력을 증강시키고자 했다.<sup>32)</sup> 이러한 군대식 노동통제방식은 일본이 조선에서 실시한 전시 노동정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일제는 이러한 식민지 상황에서 군대식 노동통제 아래 가치관이 채 확립되지 않았던 유년기 아동들을 ‘소년산업전사’라는 명칭으로 미화하고 이를 노래로 만들어 주입식 교육을 시켰다.

이러한 ‘군국주의’적 교육은 음악뿐만이 아니라 국어(일본어) 등에서도 함께 실시되었지만 문화적으로 선전 효과가 높은 노래를 이용한 교육은 파급효과가 훨씬 컸을 것이다. 아동들은 노래를 따라 부르며 야스쿠니의 신이 되는 낙하산부대나 공군이 되기를 꿈꾸고 직접 참전하지 못한 아동들은 때로는 ‘소년산업전사’로 후방지원을 위한 애국반으로 활동했을 것이다.

‘소년산업전사’로 대표되는 아동의 노동 의무부여는 <3-5> 「모내기(田植)」에서 나라를 위해 쌀을 심고 농사를 짓는 것으로, <3-7> 「어린이애국반(こども愛國班)」에서는 고철을 줍는 것으로, <3-19> 「위문대(ろもん袋)」에서는 조국의 땅 내음이 스며든 위문품을 보내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위문대(ろもん袋)」의 마지막 가사 ‘위문편지 그림연극/ 그림책도 곁들여/ 넣었습니다。(ろもんの手紙紙しばる、/繪本もそへて/入れました)’를 통해 위문품을 소년병들에게 보내는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4-2> 「작업의 노래(作業の歌)」에서는 ‘추위도 더위도 잊어버리고 다함께 힘을 합쳐 일하자’는 가사를 삽입하여 근로·근면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4-12> 「마을의 대장장이(村の鍛冶屋)」에서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무쇠 같은 팔 근육을 자랑하며 일하는 노동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32) 전게서, pp.350-351.

#### 4. 나오며

지금까지 일제 말 마지막 음악교과서인 『初等音樂』의 교과 과정의 특징을 살펴보고 내용적인 면을 분석해 보았다.

먼저 제4차 교육령 시기에 교육된 『初等音樂』은 그 이전과는 달리 일상생활의 소리와 연관시켜 청음 능력을 키우도록 노력하였다. 이렇게 예민한 청각의 육성을 중시한 것은, 전장에서 아군기와 적기를 구분하고 총, 포 등 다양한 무기의 소리를 구분가능하게 하기 위한 절대음감이 요구되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어려운 의식창가를 잘 부르도록 지도하기 위한 의도적인 목적도 있었다.

가사(歌詞)의 내용에서, 『初等音樂』에는 특히 전쟁풍경을 지나라하게 드러내는 아동용 군가라고도 할 수 있는 '전쟁창가'가 많이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쟁창가는 전시시국을 그대로 반영하는 노래로, 가사에 천왕, 용사, 국민, 일장기(日の丸), 대동아 등의 용어가 다용되며, 전쟁에 관한 창가가 50% 이상을 차지하여, 일제가 시행한 '군국주의'적 음악교육이었음을 알 수 있다.

『初等音樂』의 가사(歌詞)에 '鐵'이라는 중의(重意)적 장치로 무쇠, 강철과 같은 굳은 의지를 표상(表象)하는 정신적인 측면에 아동들에게 자원으로써 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있다. 이는 전시국책으로 '鐵'이 중요한 군수물자로 승화시켜, 학생들에게 암시시켰기 때문에 더욱 세밀한 장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일제는 조선 식민지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군대식 노동 통제 아래 가치관이 채 확립되지 않았던 유년기 아동들을 '소년산업전사'라는 장치의 노래를 만들어, 가장 교육시킴으로서 노동력 동원을 원활하게 이행하려 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일제 말기에 시행된 『初等音樂』에 의해 교육된 창가는, 음악성 고취보다는 전쟁을 미화하고 정당화하는 선전 선동의 노랫말들로 장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일제는 『初等音樂』의 창가교육을 통해 조선의 병참기지화를 위한 '軍國主義' 장치로 활용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창일(1995) 『일제식민지정책연구논문집』 중에서 「일제의 조선지배정책과 군사동원」 광복50주년기념사업위원회, 학술진흥재단, p.137.
- 곽건홍(2001) 『日帝의 勞動政策과 朝鮮勞動者』 신서원, pp.218-220, pp.273-280, pp.350-351.
- 권혜근(2010) 「韓國 近·現代의 音樂教育 研究-韓·日 音樂 教育課程의 比較」 성균관대 박사논문, p.27, p.46, p.47.
- 김순전 외(2013)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편찬 초등학교 〈唱歌〉 교과서 대조번역(下)』 제이앤씨, pp.170-173, pp.192-193, pp.242-243, pp.256-257, pp.328-329, pp.420-421.
- 김인호(2000) 『식민지 조선경제의 종말』 신서원, pp.306-310.
- 김정현(1994) 「일제의 대동아공영권 논리와 실제」 역사비평, p.71.
- 노동은(2002) 『한국음악론』 한국학술정보(주), p.447.
- 방중기(2004) 『일제파시즘 지배정책과 민중생활』 연세국학총서, pp.415-417.
- 윤성원(2010) 「음악교과교육의 영역과 역할 탐색을 통한 음악과 교육과정 성격 향의」 『음악교육공학 제11호』 한국음악교육공학회, p.4
- 오천석(1964) 『한국신교육사』 현대교육총서출판사, p.340
- 이병담, 김혜경(2007) 「조선총독부 초등학교 『창가』에 나타난 음악교육과 식민성」 『일본어문학』 37집 일본어문학회, p.191.
- 진영은(2003) 『교육과정 - 이론과 실제』 학지사, p.87.
- 정재철(1985) 『日帝의 對韓國植民地 教育政策史』 일지사, p.463.
- 호리우치 게이조, 이노우에 다케시 공저(1992) 『日本の 唱歌』 한국음악사학보, pp.187-188, p.194.

中村紀久二 外(1982) 『復核国定教科書(国民学校期)解説』 ほるぷ出版, pp.167-168.

성명(한글) : 김 서 은

(한자) : 金 瑞 恩

(영문) : Kim, Seo-Eun

논문영문제목 : Instrumentalization in Musical Education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t Elementary Education

소속 :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일어일문학과

E-mail : serfenamour@hanmail.net

성명(한글) : 김 순 전

(한자) : 金 順 禎

(영문) : Kim, Soon-Jeon

소속 :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일어일문학과

306 日本語文學 第 65 輯

E-mail : [sjkim77@jnu.ac.kr](mailto:sjkim77@jnu.ac.kr)

투 고 일 : 2014년 3월 31일

심사개시일 : 2014년 4월 3일

심사완료일 : 2014년 4월 29일